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36618

2008년 8월
교육학석사(영어교육)학위논문

영어 동사-전치사 구조의 유형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서 민 교

영어 동사-전치사 구조의 유형 연구

A Study on Types of English Verb-preposition Constructions

2008년 8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서 민 교

영어 동사-전치사 구조의 유형 연구

지도교수 이 고 희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영어교육) 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4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서 민 교

서민교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인

2008년 6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초록 ····· ii

Ⅰ. 서론 ····· 1

Ⅱ. 동사-전치사 구조의 통사적 특성 ····· 2
2.1 타동사적 동사-전치사 구조 ····· 4
2.1.1 verb+NP+PP ····· 8
2.1.2 verb+PP+NP ····· 11
2.2 자동사적 동사-전치사 구조 ····· 12
2.2.1 verb+intransitive PP ····· 12
2.2.2 verb+transitive PP ····· 14
2.3 기타 유형 ····· 21

Ⅲ. 동사-전치사 구조의 의미적 특성 ····· 22
3.1 의미적 특성 ····· 22
3.1.1 문자적 의미 ····· 25
3.1.2. 비은유적 의미 ····· 26
3.1.3. 은유적 의미 ····· 28
3.1.4. 인지문법 측면의 의미 확장과 부호화 ····· 29

Ⅳ. 동사-전치사 구조의 화용적 특성 ····· 33
4.1 화용적 특성 ····· 33
4.1.1. 비격식성과 생산성 ····· 33
4.1.2. 음운론 측면 ····· 35
4.1.3. 정보제시와 전치사구의 위치 ····· 36

Ⅴ. 결론 ····· 40

참고 문헌 ····· 42
부록 ····· 45

ABSTRACT

A Study on Types of English Verb-preposition Constructions

Min-gyo Suh
Advisor : Prof. Ko-Hee,Lee, Ph.D.
Major in English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xpound on the concept of verb-preposition constructions and their characteristics in terms of semantics and pragmatics. Verb-preposition constructions are divided into five types as follows; verb + noun phrase + propositional phrase, verb + prepositional phrase + noun phrase, verb + intransitive prepositional phrase, verb + transitive prepositional phrase, and verb + prepositional phrase + noun phrase.

These classifications are based on Bas Aarts (2001) and three high school English textbooks, investigated to analyze their verb-preposition constructions.

Chapter 2 discusses different scholars' definitions of verb-preposition constructions and their types. Verb-preposition constructions are combinations of verbs and prepositional phrases, which are different from adverbs or prepositions. Though there are many different views on types of verb-preposition constructions, this study is limited to five types which are categorized by Passivization, Insertion of Adverb Phrase, and Preposition Shift tests.

Chapter 3 deals with verb-preposition constructions in terms of semantic and pragmatic features. The meaning of the verb-preposition construction depends on the contribution of prepositional phrases. Literal meaning is likely to derive from a mixture of the verb and prepositional phrase(s). Semi-idiomatic meaning derives from prepositional phrases which play a dominant role in exaggerating the verb. Idiomatic meaning is harder to decode than any other meaning type since it consists of figurative meaning beyond the meaning of the constituent words.

Lastly, Chapter 4 describes the pragmatic factors related to verb-preposition constructions. Verb-preposition constructions usually have productivity. Also, they have primary stress on the particle, while free combinations have stress on their verb. This can be explained by the end-weight maxim.

The appendix includes surveys of three first-year high school textbooks. The first book (Kyohaksa, 2003) has total 135 verb-preposition constructions. Another (Case, 2001) contains 130 verb-preposition constructions. The third (Neungyule, 2002) uses verb-preposition constructions 196 times. The results show that these books prefer Type 3 to Type 2, and disfavor Type 4 verb-preposition constructions.

Ⅰ. 서론

현재 영어교육의 목표는 학습자의 의사소통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을 증진시키는데 있다. 학생들이 책을 통해 교실에서 언어를 배우는데 그치지 않고, 교실 밖의 실생활에서도 배운 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과서와 수업 내용이 변화했다.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으로 교과서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 상황에 따른 기본적인 표현들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학생들이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쓰이는 구어적인 표현들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 중 오늘날 구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숙어와 구분하기 힘들어서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이 바로 동사-전치사 구조(Verb-preposition construction)이다. 동사-전치사 구조는 오늘날 생활영어나 구어체 영어 문장에서 사용빈도가 대단히 높다. 일상생활에 쓰이는 동사 중에서 어휘책에 나오는 라틴어 어원의 동사는 일부에 불과하며, 오히려 동사와 첨사(particle)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동사-전치사 구조가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동사-전치사 구조는 현재 3-4천개 정도 사용되고 있으며 구성 요소들 간의 친밀성, 비유적 표현의 용이성, 품사전환의 용이성 등의 이유로 앞으로도 그 어휘수가 계속 증가될 전망이므로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실용영어를 잘 구사하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생각을 아주 쉬운 단어를 사용하여 정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이 사용하는 문장의 특징은 *put, go, take, look* 등과 같은 기초적이고 간단하다고 생각하는 동사에 첨사를 붙여서 활용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다시 말해서 동사-전치사 구조를 잘 익히면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리라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현대 영어의 특징 중의 하나로서 동사-전치사 구조를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환경에서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동사-전치사 구조와 함께 다른 동사구를 한정된 일부의 의

미로 암기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동사-전치사 구조를 사용 • 변형 • 생성해낸다. 많은 영어학습자들이 의미를 이해하고 사용하기 힘든 것은 동사-전치사 구조의 다의성 때문이다. 기본어휘동사와 전치사구의 결합은 구 부분이 의미에 기여하는 비중이 다르고, 그 의미가 확대되고 구체화되어 비유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Bas Aarts(2001)의 분류를 토대로 동사-전치사 구조를 나누고, 이 중 자동사적 동사-전치사 구조를 중심으로 의미적 특성과 화용적 특성을 알아본다. 예문은 고등학교 1학년 3종 교과서(교학사, 케이스, 능률교육)에서 발췌한 것으로 그 유형은 표로 분석하여 부록에 첨가한다. 2장에서는 동사-전치사 구조의 통사적 특성을 중심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3장과 4장에서 전치사구의 역할로 의미적 특성을 규정하고, 음운론적 특성, 정보제시 측면, 전치사구의 위치를 통해서 화용적 특성을 알아본다. 5장에서는 전체를 요약하여 결론을 내린다.

Ⅱ. 동사-전치사 구조의 통사적 특성

동사-전치사 구조(Verb-preposition construction)는 동사와 전치사구의 결합으로, 일반적으로 구동사(phrasal verb) 또는 이어 동사 (two-word verb)라고 불리운다.

동사-전치사 구조에 관한 정의[1)]와 명칭[2)]은 학자들에 따라 다르다.

---

1) *Longman dictionary of Verb-preposition constructions* (1983)에 따르면, 동사-전치사 구조는 동사와 부사 혹은 전치사의 숙어적 결합이라고 하였고, *Collins Cobuild Dictionary of Verb-preposition construction* (1989)에서는 동사-전치사 구조가 부사적 혹은 전치사적 첨사와 동사의 결합이며, 매우 흔한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학생들이 동사-전치사 구조내의 동사와 첨사의 별개의 뜻에 익숙할지라도, 동사-전치사 구조의 의미는 두 부분의 뜻을 합성한 것과 매우 다르므로, 이해하기 힘들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2) 동사-전치사 구조에 대한 학자들의 구체적 명칭은 매우 다양하다. Verb-Particle Combination (Quirk et al. :1985), Multi-word Verb (Quirk et al. :1985), Phrasal Verb (Bolinger: 1971), Two-word verb (Taha: 1960), 2 Word Verb (Hook:1981) Separable Compound Word (Curme: 1947), Discontinuous Verb(Live:1965), Group Verb (Sweet: 1892), Verb-Adverb Combination (Kennedy: 1920), Verb Idiom(Feare: 1980)등이 있다.

Bolinger(1971)는 동사-전치사, 동사-부사의 결합에 대하여 구동사(phrasal verb)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는 언어학자들이 구동사를 식별하고 설명하기 위해 사용해 왔던 다양한 기준들을 통합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만일 전치사가 순수하게 쓰인다면, 동사-전치사를 동사-전치사 구조로 간주하지 않고, 부사성 전치사(ad-prep)의 전치사적 사용을 허용했다. 그리고 부가사(adjunct)가 부사적 첨사가 아니거나 부사성 전치사의 부사적 사용이 아니라면, 동사-전치사 구조의 범주에서 동사-부사의 결합을 제외시켰다.

Fraser(1976)는 구동사의 형태를 동사-첨사(particle)[3], 동사-부사, 동사-전치사 결합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동사-첨사 결합(Verb-particle combination)을 숙어라고 부를 수 있는 결합만으로 한정했다. 그가 발표한 동사-첨사의 결합은 실질적으로 2어 동사 숙어(two-word verbial idiom)이다. 구성격의 숙어(phrasal idioms)와 함께 어휘적 숙어(lexical idiom)로 구분하고 있다. 그는 숙어(idiom)를 하나의 연속 구성요소들로, 그 의미적 해석은 숙어를 구성하고 있는 독립적인 형성어들(the formatives)로 식별한다.

Hook(1981)는 동사-첨사의 결합을 '2어 동사(2-Word Verb)라고 부르고, 이것을 자동사와 타동사로 분류하고 타동사를 첨사의 분리여부에 따라 다시 '분리할 수 없는(nonseparable) 것'과 '분리할 수 있는(separable) 것'으로 세분하고 있다.

Palmer (1965)는 구동사 결합(phrasal combinations)을 합성동사(compound verb)로, 동사+전치사의 결합들에 대하여 전치사적 동사(prepositional verb)라고 칭하고, 동사+부사(verb+Adverb)의 결합에 대하여 구동사(phrasal verb)라고 제안했다.

---

3) 첨사에 관한 견해 중 Quirk et al(1985: 1150-51)은 첨사가 동사와 결합하여 부사적 역할과 전치사적 역할을 겸한다고 했다. 그들은 *drink up, dispose of, get away with* 의 표현에서 동사 다음에 오는 up, of, away등 형태적으로 변화가 없는 낱말을 첨사로 불렀다. 또한 Celce-Murcia and Lasen-Freeman(1983: 265)은 첨사를 전치사와 동일하지 않지만 유사한 것이고, 부사나 전치사와는 별개의 새로운 품사라고 하였다. 그리고 동사-전치사 구조가 구어체 영어(colloquial English)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동사-전치사 구조에 관한 지식 없이 화자가 대화의 내용이나 비공식적인 내용을 말하거나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였다.

Quirk & Greenbaum(1995)는 구동사가 어휘적 동사(lexical verb)중 독특한 형태를 지닌 다중어 동사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그 중 결합성분이 부사인 경우로 일컬으며 전치사가 결합된 경우에는 전치사적 동사(prepositional verb)이고, 부사와 전치사가 함께 나오는 동사는 전치사적 동사-전치사 구조(Verb-preposition construction)라고 정의한다.

한편 Bas Aarts(2001)는 다수의 견해와 다른 새로운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동사-전치사 구조를 동사-전치사 구조(Verb-preposition construction)로 정의하고, 타동사적인 것과 자동사적인 것으로 나누었다. 세부적으로 타동사적인 동사-전치사구조는 동사+ 명사구+ 전치사구와 동사+ 전치사구+ 명사구로 나뉜다. 그리고 자동사적인 구조는 동사+ 자동사적 전치사구와 동사+ 타동사적인 전치사구로 구성된다. 즉, 이러한 좀 더 제한적이고 복잡한 구조를 통해 특별한 어군인 첨사나 동사-전치사 구조(Verb-preposition constructions)혹은 전치사구 동사(prepositional verbs)를 분류할 필요가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즉, 동사의 하위범주화 구조에 의하여 동사와 전치사구의 특별한 관계가 성립된다고 간주하고, 동사-전치사 구조를 통사적으로 동등하게 다루어지는 동사의 집단을 언급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Bas Aarts(2001)의 분류를 적용하여, 동사-전치사 구조를 동사+ 명사구+ 전치사구, 동사+ 전치사구+ 명사구, 동사+ 자동사적 전치사구, 동사+ 타동사적인 전치사구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기타유형으로 한 가지 분류를 덧붙인다.

2.1 타동사적 동사-전치사 유형

타동사적 동사-전치사 구조(Transitive verb-prepositional construction)는 동사가 목적어를 취하는 타동사로서 동사와 전치사구가 숙어적으로 강하게 결합되어 있는 경우이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1) a. Let's *think about* universal languages of the past, the present and the future. (교학사 p.16)

b. Do you *listen to* English news or sing English songs? (케이스 p.16)

c. *Welcome to* my homepage. (케이스 p.115)

d. When you *leave* these extra details *out*, it gives you room on your invitation to put much more important things: (능률교육 p.42)

타동사적 동사-전치사 구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동사 다음에 오는 전치사구와 명사구의 어순이다. 동사의 목적어인 명사구는 전치사구의 앞이나 뒤에 위치할 수 있는데, 어순의 차이점들은 타동사적 동사-전치사 구조가 관용적인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2) a. Don't *put on* that glass the edge of the table. (교학사 p.160)

b. Don't *put* that glass *on* the edge of the table.

(3) a. Koreans always *take off* their shoes in the house. (능률교육 p.117)

b. Koreans always *take* their shoes *off* in the house.

예문 (2)에서 명사구 *that glass*는 전치사구 *on*의 앞이나 뒤에 올 수 있고, (3)의 명사구 *their shoes* 도 전치사구 *off* 의 앞과 뒤에 위치할 수 있다.

그 외에 타동사적 동사-전치사 구조를 동사와 부사 혹은 동사와 전치사의 임의적 결합인 자유결합형(free combination)[4]과 구분해보자. 먼저 타동사적 동사-전치사

4) 자유결합형 동사는 Quirk와 Greenbaum(1995)이 정의한 동사와 다른 성분이 결합하여 형성된 다중어 동사와 형태적으로 유사하지만, 구성요소들이 각각의 의미를 보존하며, 문장 속에서 독립적인 의미기능을 갖는 비숙어적인 연결구조이다. 그러나 Quirk & Greenbaum(1990: 336)은 다중어 동사와 자유결합형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There is not a sharp boundary between multi-word verbs and free combinations, where the parts have distinct meaning, rather there is a gradient ranging from idiomatic and syntactically cohesive. Combinations that are loosely connected.

구조는 숙어적으로 강하게 결합된 단위로서, 목적어를 가질 때 수동화가 가능하다. 하지만, 자유결합형은 수동화가 불가능하다.

(4) a. They *looked after* the cat.

→ The cat was *looked after* by them.

b. He didn't *look behind* the door.

→ *The door wasn't *looked behind* by him.

(4a)는 타동사적 동사-전치사 구조로서 수동문으로 변형되었고, 동사와 단순한 전치사의 연결인 (4b)는 수동문으로 바꾸면 비문이 된다. (4a)의 *look after*는 '뒤따라가며 보다'라는 표면적 의미가 아니라 '돌보다'라는 추상적이고 은유적인 의미이다. 그러므로 동사와 전치사구의 결합이 긴밀하게 하나의 문법 단위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a. The thieves *broke into* the bank.

→ The bank *was broken into*.

b. The children *broke into* a rash.

→ * A rash *was broken into*.

또한 능동문의 목적어가 수동문으로 변형하면 주어가 되므로 그 목적어가 행동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따라 수동문의 변형 여부가 결정된다. 예문(5a)는 능동문의 목적어 *the bank*가 수동문의 주어가 되면 정문이고, (5b)의 능동문은 '온몸에 발진이 났다'는 뜻으로, 이를 수동문으로 바꿀 경우 *a rash*가 주어가 되어 행동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비문이 된다.

(6) a. The train *picked up* speed.

→ * Speed *was picked* by train.

b. He was *fed up* with the noise.

→ * The noise *fed* me *up*.

특정한 표현들은 능동태로 혹은 수동태로만 쓰인다. 위 (6a)는 목적어가 특별한 명사나 대명사로 동사와 전치사구 결합이 강하여 수동태로 분리시킬 경우 비문이다. 그러나 (6b)에서 *with the noise*는 by+ 행위자로 대표되는 순수한 의미의 수동으로 보기 어렵고 수동태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형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타동사적 동사-전치사 구조는 의문사 구문으로 변형하면 차이점이 있다. 의문사 구문 변형을 대명사적 의문사 변형과 부사적 의문 변형으로 나누면, 타동사적 동사-전치사 구조는 목적어를 의문대명사 *who(m)* 또는 *what* 으로 하는 의문 변형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타동사적 동사-전치사 구조 자체가 타동사로 기능을 할 때, 뒤에 오는 목적어는 타동사적 동사-전치사 구조의 목적어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유 결합형의 경우 동사와 전치사 구조가 하나의 통사적 단위가 아니다. 이때 목적어는 동사의 목적어가 아니라, 바로 앞에 오는 전치사의 목적어이다. 전치사구와 목적어가 하나의 단위이므로,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where, when* 등의 의문사로 바꿔야 한다.

(7) a. He *figured out* a solution.

b. What did he *figure out*?

c. * Where did he *figure out*?

예문(7)의 *figure out*은 타동사적 동사-전치사 구조로 *a solution*을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의문문으로 바꿀 때 목적어를 묻는 의문사 *what*을 쓸 수 있지만, 의문부사 *where*를 쓰는 것은 불가능하다.

(8) a. A bird *flew over* the fence.

b. * What did a bird *fly over*?

c. Where did a bird *fly over*?

예문(8)에서 *fly over*는 자유결합형으로 *over the fence*를 받는 의문부사 *where*로 변형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이를 의문대명사 *what*으로 변형한 경우 비문이 된다. 대부분의 비관용적인 연결구조의 전치사 구는 부사적인 기능을 가지며, *when, where, how*등 의문부사와 함께 의문문을 형성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주어진 문장의 의문변형여부가 동사-전치사 구조와 자유결합형을 구별하는 절대적 요소는 아니다. 동사에 일반 전치사의 결합한 형태인 자유결합형의 경우 의문대명사와 의문부사로 둘 다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5)]

2.1.1 동사+ 명사구+ 전치사 유형

(9) a. We should *pick it up* around the camping site. (교학사 p.132)

b. We should *pick up* trash around the camping site.

(10) a.* You'll *put out* it. (능률교육 p.88)

b. You'll *put* it *out* .

위 예문들은 동사의 직접목적어인 명사구가 전치사구 앞에 오는 경우이다. 특히 목적어가 대명사인 경우 항상 전치사구 앞에 놓이게 된다. 예문의 *pick up*과 *put out*은 타동사적 동사-전치사 구조이다. 직접목적어가 (9)의 *trash*와 같이 명사구이면 전치사 구는 목적어의 앞뒤에 모두 올 수 있다. 하지만 (9a)와 같이 대명사 *it*이 목적어일 때 전치사구 *up*을 선행한다. 예문 (10)에서 대명사가 목적어이므로 전치

5) 다음 예문은 자유결합형인데, 두 가지 의문변형이 모두 가능한 경우이다.

The car stopped beside a wall.

→ What did the car stop beside?

→ Where did the car stop?

사구 *out*의 앞에 위치하는 것이 정문이다.

(11) a. The old man *turned off* the tape recorder. (능률교육 p.262)
b. The old man *turned on* the tape recorder.
c. The old man *turned* the tape recorder *on and off.*

둘째 목적어가 대명사가 아니지만, 직접목적어가 전치사구 앞에 위치하는 것이다. 이것은 전치사구가 등위 접속 되는 경우로 예문(3c)처럼 *on*과 *off*가 합쳐져서 하나의 전치사구로 쓰이는 경우는 직접목적어 *the tape recorder* 다음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2) a. She *cried* her eyes *out*.
b.* She *cried out* her eyes.
(13) a. I *sobbed* my heart *out*.
b.* I *sobbed out* my heart.
(14) a. He *knocked* his children *about*.
b. *He *knocked about* the children.

셋째 관용적인 표현의 일부에서 전치사 구는 직접목적어 다음에서만 쓰인다. 예문(12)의 *cry out*은 '눈이 퉁퉁 붓도록 울다', '몹시 울다'라는 의미로 숙어적으로 쓰인 경우이다. 예문(13)의 *sob out*도 '가슴이 터지도록 흐느껴 울다'는 뜻으로 역시 동사와 전치사구의 결합이 강하여 어순이 고정된 경우이다. (14)의 *knock about*은 '마구 두들기다, 난타하다'는 뜻으로 문장의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직접목적어와 전치사구의 어순이 정해져 있어, 직접목적어가 전치사구 뒤에 온다.

반면 동사-전치사 구조가 두 개의 명사구를 선행하는 경우가 있다. 대개 두 개의

명사구는 전치사 구에 의해 분리되며, 첫 번째 명사구는 동사의 직접목적어이다. 이때 전치사구의 뒤에 오는 두 번째 명사구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된다.

(15) a. The farmer *took care of* his roses as if they were his kids. (교학사 p.23)

b. *Take advantage of* the opportunity to make something available to other users of the Internet. (케이스 p.110)

c. It's just a matter of *paying attention to* that endless flow of ideas within yourself and learning to catch and act upon the best ones. (능률교육 p.154)

위의 구조는 목적어인 명사구가 두 개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수동문으로 변형해 보면 문장 간의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다. 그 유형은 동사의 직접 목적어만이 수동태의 주어로 될 수 있는 것, 동사의 직접목적어와 전치사의 목적어가 모두 수동태의 주어가 되는 것, 전치사의 목적어만이 수동태의 주어가 되는 것으로 나뉜다.

(16) a. The gang *deprived* her of her necklace.

→ She was *deprived of* her necklace (by the gang).

→ *Her necklace was *deprived of* her (by the gang).

예문 (16)의 *deprive of* 는 동사의 직접 목적어인 *her*가 수동문의 주어로 오면 정문이지만, 전치사구의 목적어인 *her necklace*가 수동문의 주어로 오면 비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유형으로 *confine to, make a mess of, make allowance for, take advantage of* 등이 있다.

(17) a. I *took good card of* the children.

→ *Good care* was *taken of* the children.

→ The children were *taken good care of.*

예문 (17)의 *take care of* 는 동사의 직접목적어 *care*와 전치사구의 목적어 *the children*이 모두 수동문의 주어가 되는 것이 가능하다. *pay attention to* 가 이 유형에 속한다.

(18) a. I *kept pace with* my classmates.

→ * Pace was kept with my classmates.

→ My classmates were *kept pace with* me

예문 (18)은 타동사적 전치사 수반동사 *keep pace with*를 수동문으로 전환할 경우 전치사구의 목적어가 주어로 오는 것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 다른 예로는 *catch sight of, give rise to, give way to, lose touch with, cross sword with, keep tabs with* 등이 있다.

2.1.2 동사+ 전치사구+ 명사구 유형

다음은 명사구가 전치사구의 뒤에 오는 경우이다. 전치사 구는 명사구가 길 때 명사구를 선행하고, 의도가 마지막 목적어가 끝단 초점을 받는다면 명사구를 선행하려는 경향이 있다.

(19) a. Her parents *brought up* her in America. (케이스 p.278)

b. *Her parents *brought* her *up* in America.

(20) a. Kids like to *pick on* people who are different. (능률교육 p.128)

b. *Kids like to *pick* people who are different *on*.

예문 (19), (20)의 *bring up*과 *pick on*은 타동사적 동사-전치사 구조로서 관용적으로 쓰인다. 즉 동사와 전치사구의 결합이 강하여 하나의 성분(constituent)를 이룬다. 그러므로 전치사 구는 직접목적어를 선행하여 동일한 성분인 동사와 같이 있게 된다.

(21) a. She *took in* the letter.
b. She *took in* her brother.

예문 (21a)의 *took in* 은 자유결합형이다. 동사와 부사 *in*의 자유로운 결합으로 '안으로 가지고 왔다 (brought inside)' 를 의미한다. 이때의 *in*은 *outside, away, down* 등의 다른 부사로 대치해도 의미가 통한다. 반면 (21b)의 *took in* 은 타동사적 동사-전치사 구조로서 '그녀의 남동생을 속였다 (deceived)'라는 뜻이며, 관용적인 의미로 쓰이고 다른 전치사구로 *in*을 대치할 경우 비문이 된다.

2.2 자동사적 동사-전치사 구조

자동사적 동사-전치사 구조는 목적어인 명사구가 동사와 전치사구 사이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타동사적 동사-전치사 구조와 차이점을 보인다. 동사와 자동사적 전치사구 혹은 타동사적 전치사구로 구성된다.

2.2.1 동사+자동사적 전치사구 유형

(22) a. After sun goes down, things will begin to *cool down*.
(교학사 p.38)
b. Should we *get up* early tomorrow? (교학사 p.132)

c. They *live in* Gaeseong. (케이스 p.192)

d. Every time the sun *comes up* and *goes down*, we call it a day.
(능률교육 p.39)

동사와 자동사적 전치사구의 결합은 직접목적어인 명사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위 문장들에서 *cool down, get up, live in, come up, go down* 등은 동사와 자동사적 전치사구가 강하게 결합된 구조이다. 여기에서 사용된 자동사적 전치사 구는 서술 부가어(predication adjunct)같은 기능을 하며 보통 동사와 떨어질 수 없다 (Quirk et al. 1985: 1152). 이 구조의 대부분은 숙어적(idiomatic)이고 다른 것들보다 결속력이 크다.

동사+자동사적 전치사구를 자유결합형과 비교하면, 동사+자동사적 전치사구와 달리 자유결합형 내의 각 단어는 쉽게 결합해서 자유롭게 사용되며 단어 간의 결속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23) a. I ran in.

b. They swam across.

예문 (23)는 자유결합형의 예이다. *in* 과 *across*는 부사로서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구와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다. 의미적인 면에서 부사와 동사의 분리는 가능한 대치어들로 구분할 수 있다. 위의 *run*, *swim* 대신에 *walk, jump, fly, come, blow* 등을 쓸 수 있고, 부사 *in*과 *across* 대신에는 *back, down, through, over, out, up*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24) a. **Down* The first child always *cuts* straight. (능률교육 p.153)

b. **In* the first child always *come* . (케이스 p.134)

c. *On* She *drove* into the night.

d. *Out came* the sun.

동사-자동사적 전치사구와 자유결합형의 다른 차이점은 부사를 문두로 이동할 수 있는가의 여부이다. (24a), (25b)의 *cut down, come in* 은 동사-자동사적 전치사구로서 동사와 전치사구가 강한 결합력을 가지고 있다. 이는 (24c), (24d)의 비숙어적인 자유결합형과 형태면에서 비슷하지만 성격이 달라서 자동사적 전치사 구를 분리시켜 문장의 앞으로 이동할 수 없다.

(25) a. *When the first mountain bikes *came* suddenly *out*, people thought they looked silly. (교학사 p.137)

b. *The information highway has *opened* quickly *up* a whole new world. (교학사 p.262)

c. He *went* quickly *across* the street.

d. The water was *falling* directly *down*.

그리고 예문 (25a), (25b)와 같이 동사-자동사적 전치사구 *come out, open up* 은 숙어적인 강한 결합력 때문에 동사와 전치사구 사이에 부사와 같은 부가어(adjunct)가 수식을 할 수 없지만, 자유결합형(25c), (25d)는 수식이 가능하다.

2.2.2 동사+타동사적 전치사구 유형

자동사적인 동사+타동사적 전치사 구(verb + transitive PP)는 명사구를 수반하는데, 이때 명사구는 동사의 직접목적어가 아니라 전치사구의 보어 역할을 한다.

(26) a. Widow Stanley *talked about* her dead husband. (교학사 p.40)

b. I hear you *stayed in* Korea for the summer. (교학사 p.146)

c. I'm *worried about* my physical education class! (케이스 p.15)

d. Are you *interested in* the Human Genome Project, Donald? (능률교육 p.226)

예문 (26)의 *talk about, stay in, worry about, interest in* 은 동사-타동사적 전치사구 이다. 문장 내에서 동사와 전치사구가 의미적, 통사적으로 서로 연관되고, 전치사 구는 명사구를 반드시 선행한다. 이때 보어인 명사구는 전치사적 목적어(prepositional object)라고 불린다. (26a)의 목적어 *her dead husband*는 동사-타동사적 전치사구 *talk about*의 목적어가 아니라 전치사 *about*의 목적어이다.

(27) a. Widow Stanley *talked* mostly *about* her dead husband. (교학사 p.40)

b. "But *look* carefully *at* yourself. I've never seen anyone so dirty!" (능률교육 p.198)

위 *talk about, look at*는 동사-타동사적 전치사 구로서 각각 동사와 전치사구 사이에 부사어를 삽입한 것이다. 동사-타동사적 전치사 구는 동사와 결합한 전치사구가 뒤에 오는 명사구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사와 전치사구 간의 숙어적 결합력은 다소 약하다. 그러므로 (27a)의 *talk about* 사이에 *mostly*를, (27b)에는 *look at* 사이에 *carefully*를 삽입할 수 있다.

또한 동사-타동사적 전치사구와 자유결합형의 차이점이 있다.

(28) a. The professor was *called on.*

b. *Lunch was *called after*.

c. Jack *call on* her → Who(m) did Jack call from?

d. Jack *call after* lunch → When did John c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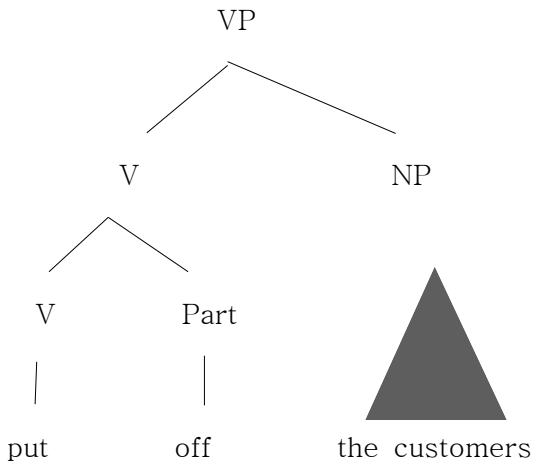
위의 예문에서 (28a)의 *call on*은 자유 결합형으로 수동문으로 전환된 경우이다. (28b)의 *call after* 는 동사-타동사적 전치사구인데, 수동문으로 전환하자 비문이 되었다. 의문문으로 바꿀 때, 동사와 타동사적 전치사구 (28c)는 대명사 *who(m)*이나 *what*으로 시작하고, (28d) 자유결합형은 wh-의문문으로 시작된다.

한편 타동사적 동사-전치사 구조와 동사-타동사적 전치사 구조는 명사구를 취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전치사구 역할의 차이로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다. 타동사적 동사-전치사 구조는 성분 간의 결합구조가 강하지만, 동사-타동사적 전치사 구조는 전치사와 뒤에 오는 명사구가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하나의 구성소를 이루지 못한다. 다음 예문을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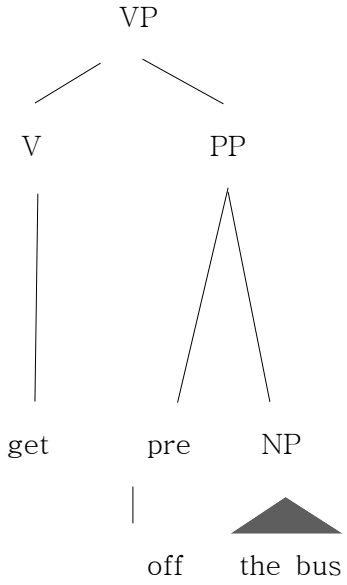
(29) a. Drunks would *put off* the customers.
b. Drunks would *get off* the bus. (Radford, 1988)

표면적으로 두 문장이 동일한 구조로 보일지 모르지만, (29a)의 전치사구 *off*는 동사 *put*과 함께 [put off]를 이루는 반면 (29b)에서는 전치사 *off*가 후행 명사구 *the bus*와 어울려 전치사구 [off the bus]를 이룬다. 다시 말해서 (29a)의 *put off* 라는 연속이 어떤 종류의 '복합 동사'이루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타동사적 동사-전치사 구조라고 말할 수 있고 (29b)의 *get off*가 뒤에 전치사 구를 취하기 때문에 동사-타동사적 전치사구 라고 할 수 있다.

(29a) [타동사적 동사-전치사 구조 : verb +NP+PP]



(29b) [동사 - 타동사적 전치사 구조 : verb+ transitive PP]



예문 (29)과 위의 수형도를 중심으로 두 구조의 차이를 몇 가지 살펴보자.

첫째 타동사적 동사-전치사구[put off]는 [put on]으로 대치하면 비문이 된다. (* Drunks would put on the customers.). 반면 동사-타동사적 전치사 구조 *get off*

는 어떤 관련된 의미를 가진 다른 '전치사구'들에 의해 대치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구를 이루는 [get off the bus]를 *off*의 반대말인 *on*으로 대치하여 [get on the bus]로 대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동사-타동사적 전치사구 *get off*와 *get on*에서 *get*이 전치사에 상관없는 일정한 의미(climb)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타동사적 동사-전치사 구조 *put off*는 다소 *deter*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데 반하여, *put on*은 대체로 *wear*와 유의어 관계가 된다. 그러므로 동사-타동사적 전치사 구조는 성분 부분들의 합으로 이루어진 의미를 갖고 있고, 타동사적 동사-전치사 구조는 특이하거나(idiosyncratic) 관용적인 의미를 가지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강조를 위해 전치하는 경우 동사-타동사적 전치사 구조 *get off* 에서 [off the bus]라는 구가 강조를 위해 전치될 수 있지만, 타동사적 동사-전치사 구조인 *put off*에서 [off the customers]는 이동할 수 없다. 문장 내에서 단지 온전한 구만이 이동될 수 있으므로 [off the customers]는 하나의 성분이 아니라는 뜻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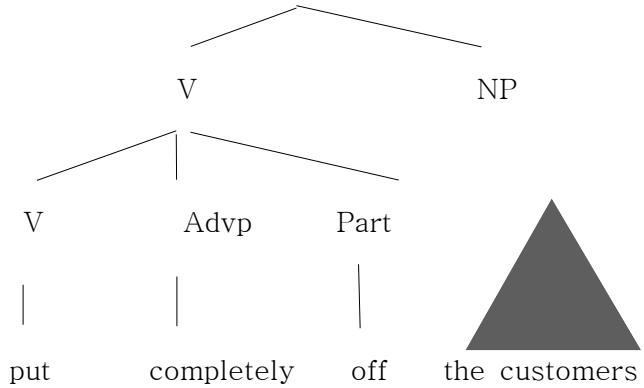
셋째 *get off* 와 *put off* 가 하나의 문장 성분이라면 연속된 문장 단편으로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의문문의 답으로 변형할 경우, (29a)에서는 연속된 [off the bus]가 문장 성분이 될 수 있다 (Did he get off the train? - No, off the bus). 이로써 [off the bus]가 전치사구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29b)의 [off the customers]는 비문으로 의문문의 대답이 될 수 없다 (Would drunks put off the waitresses? - *No, off the customers). 그러므로 [off the customers]는 연속된 문장 단편이 아니며, [put off]가 함께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 입증된다.

넷째 동사구내에 출현할 수 있는 *quickly, slowly, completely*등의 VP-부사를 삽입하면, 동사-타동사적 전치사 구조에서는 가능하나 타동사적 동사-전치사구조에서는 비문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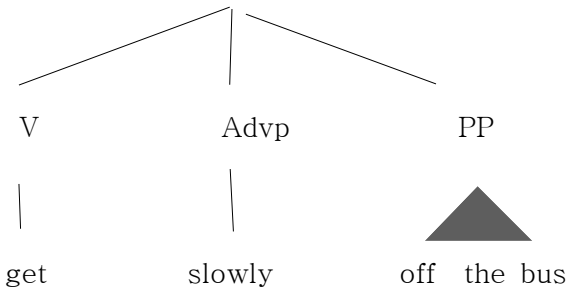
(30) a. * Drunks would *put* completely *off* the customers.

b. Drunks would *get* slowly *off* the bus.

(30a) *



(30b)



(30a)에서 VP-부사 *completely*는 VP교점이 아닌 V교점에 부착되어 있어 *put off* 사이에 두면 비문이다. *put off*는 하나의 타동사 역할을 하고 있어 하나의 V교점(성분) 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31b)에서 *slowly*는 VP 부사가 첨가될 수 있는 VP교점에 부착되어 있어 정문이다.

다섯째 대명사 목적어를 취할 경우 두 구조의 위치가 다르다.

(31) a. * Drunks would *put off* them.

b. Drunks would *put* them *off*.

c. Drunks would *get off* it.

d. *Drunks would *get* it *off*.

위의 예문 (31a), (31b)에서 타동사적 동사-전치사 구조 *put off*는 대명사 목적어를 취할 때 첨사의 앞에 오면 정문이지만 문장의 끝에 오면 비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타동사적 동사-전치사 구조는 목적어가 대명사 일 때 전치사구가 목적어의 뒤에 있어야 하고, (31c), (31d)에서 동사-타동사적 전치사 구조 *get off*는 *get*과 [off it]이 각각 하나의 성분을 이루고 있어 대명사 *it*이 전치사구 *off*앞으로 와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섯째, 간격화(gapping)[6]를 이용해서 타동사적 동사-전치사 구조*get off* 와 동사-타동사적 전치사 구조 *put off* 의 차이점을 알아보자.

(32) a. Drunks <u>would get</u> off the busn and junkies ~~would get~~ off the train,

b. * Drunks <u>would put</u> off the customers, and junkies ~~would put~~ off the waitresses.

c. Drunks <u>would put off</u> the customers, and junkies ~~would put off~~ the waitresses.

어떤 동사가 간격화될 때, 그에 선행하는 조동사가 동사와 계속적인 연속을 이루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사와 함께 생략될 수 있다. 예문 (32a)는 *would get*의 간격화가 가능하지만, (32b)에서는 *would put*의 간격화가 불가능하다. 오히려 (32c)에서 *would put off* 전체의 간격화가 가능하므로, *put off* 는 타동사적 동사-전치사 구조로서 단일한 성분임을 알 수 있다.

6) 간격화(gapping)은 생략의 일종으로 어떤 구나 절의 중간에 간격(gap)을 남기는 효과를 가지는 것이다. 문장에서는 단위성분만이 간격화 될 수 있다.

2.3 기타 유형

위의 분류에 속하지 않은 유형으로 동사+ 전치사구+ 전치사구+ 명사구로 이루어진 구조를 살펴보자. 동사와 두 개의 전치사구가 결합된 구조는 명사구를 직접 목적어로 가진다[7]. 이러한 결합은 구어체 영어에 있어 크게 제한되어 있다.

(33) a. I would *break up with* someone if he/she had bad manners. (케이스 p.51)

b. I *looked forward to* meeting you, but my business here in Canada prevented me from flying to Korea. (케이스 p.119)

c. They *stay away from* me. (능률교육 p.132)

→ I *was stayed away from* them.

동사와 전치사구들의 결합은 타동사로 기능하며, 목적어를 가지고 있으므로 예문 (33c)처럼 수동태가 가능하다.

(34) a. We *stand up* willingly *for* the team.

→*We *stand* willingly *up for* the team.

→*We *stand up for* willingly the team.

b. Whom does he *put up with* willingly?

→ *With* whom does he *put up* willingly?

위의 구조는 부사와 함께 쓰일 때, 부사가 전치사구의 사이에 올 수 있다. (34a)에서 부사 *willingly*는 두 번째 전치사구 *for* 앞에 올 수 있으나 첫 번째 전치사구

7) 이러한 결합은 Phrasal Prepositional Verb라고 하며 삼어동사, 혹은 다어동사(multi-verb)라고도 부른다. 문용, *고급 영문법 해설*, (서울: 박영사, 2002) p.47

앞이나 두 번째 전치사구 뒤에 놓이면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그리고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으로 만들었을 경우, 예문 (34b)에서 알 수 있듯이 구조를 이루는 두 번째 전치사구는 의문사 앞에 올 수 있다. 이러한 유형에는 *come down with, come out in, get away from, get on at, get out with, look up to, put up with, stick up for* 등이 있다.

Ⅲ. 동사-전치사 구조의 의미적 특성

3.1 의미적 특성

동사-전치사 구조의 의미적 특성과 관련하여 동사-전치사 구조를 이루는 두 요소 간의 의미적 관계를 알아보자. 어떤 동사가 단순동사와 동사-전치사 구조로 모두 쓰일 때, 단순동사는 활동 동사로서 일련의 과정을 묘사하지만, 동사-전치사 구조는 성취 동사로서 동작의 완성이나 정도를 표시한다. 동사와 결합하는 전치사구(첨사)[8]가 자체의 뜻이 있어 활동 동사를 성취동사로 만들고, 구체적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35) a. They beat her.
b. They *beat* her *up*.

예문 (35a)의 *beat*는 그들이 그녀를 '몇 번 때렸다'는 사실만을 진술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They*가 목적어인 *her*에 물리적인 위해를 가했지만, 결과적으로 목적어 *her*가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지는 명확히 표현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35b)는 전치사구 *up*이 더해져서 '사람이 서 있다가 땅에 쓰러질 정도까지 때렸다'

8) 일반적으로 인정받는 첨사(particle)의 개념을 본 논문의 분류에 따라 전치사구로 통칭하기로 한다.

는 의미가 된다.

전치사구 *up*은 '위로, 보다 높은 위치로' 라는 방향의미를 갖고 있다. *up*의 방향성을 공간영역에서 비유적으로 적용할 경우 속도나 정도의 증가와 관련성을 가진다. 어떤 과정이 있고 그에 표시된 양이나 정도가 증가하여(up) 한계점에 이른다는 점을 나타낸다.

이러한 동사-전치사 구조의 의미에 관한 견해는 학자들마다 다른데, Fraser(1976: 5-10)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Ⅰ. verb + adverb combination

Ⅱ. verb + particle combination (idiom)

a. systematic combination

b. unsystematic combination.

그는 여기서 제 2요소가 동사-전치사 구조의 의미에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는 부사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첨사라고 하였다. 의미에 기여하는 정도는 동사와 같이 쓰이는 제2요소가 장소 이동여부를 나타내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장소 이동여부가 분명한 경우 부사이고, 그렇지 않으면 첨사라고 칭한다. 동사와 첨사가 결합할 때 체계적 결합(systematic combination)은 동사의 의미에 일관된 변화를 주지만, 비체계적 결합(unsystematic combination)은 그렇지 못하고 굳어버린 경우이다.[9)]

Woody(1974:23)는 동사-전치사 구조가 어휘 항목의 결합이고, 그 의미적 하위특성은 어느 정도 (완전히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전체 구조의 단일한 의미 해석'을 형성하기 위해 결합한다고 보았다. 그는 첨사를 부가사(adjunct)라는 용어로 정의하고 품사를 식별하는 것을 회피했다. 또한 verb-adjunct사이의 의미적 결합이

9) 체계적 결합(systematic combination)은 bolt down, cut down, drink down, swallow down, eat up, shake up 등이 있고, 비체계적 결합(unsystematic combination)은 figure out, look up, get off, make out, turn off 등이 있다.

동사-전치사 구조의 중요한 특징이고 동사-전치사와 구별하여 준다는 점을 주장했다. 동사-전치사 구조의 의미에 더 많은 한계를 정하는 하위 자질로서, Woody가 주장한 부가사란 방향적(directional)[10]인 것, 상적(aspectual)인 것으로 나뉜다. 그러므로 동사-전치사 구조 역시 방향적 동사-전치사 구조와 상적 동사-전치사 구조가 나타나게 되는데, 먼저 방향적 동사-전치사 구조에 있어 부가사가 기저의 의미적 표현에 특성[motional]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상적 동사-전치사 구조에서 상은 무형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방향처럼 하나의 물리적 장벽에 제한되지 않고, 상표지자들(aspect markers)이[11] 동사-전치사 구조와 결합할 때 하나 이상의 상을 나타나게 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진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는 이상의 자구적인 의미와 은유적인 의미 모두를 수용한다. 종합해보면 방향적 동사-전치사 구조이든 상적 동사-전치사 구조이든 간에 동사와 그 연관된 부가사는 의미적으로 통사적으로 모두 하나의 동사-전치사 구조로서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 결합하는 하나의 결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Bolinger(1971: 99)는 상적(aspectual) 및 비상적 첨사 용법의 구분이 어렵고 경사적 분포를 이루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 예로써 *up*의 의미를 더 세분화하여 다섯 가지로 나누었고, 장소 이동의 의미와 비유적인 의미도 서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Ⅰ. 직접적이거나 비유적이거나 '위로'의 방향의 의미

a. Perishable goods *piled up* at the docks because of the strike.

---

10) Woody가 제시하는 방향적 부가사의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Ⅰ. supradirectional - above, on, over, up, upon

Ⅱ. subdirecitonal - below, beneath, down, under

Ⅲ. laterodirectional - aback, across, after, ahead, along, aside, at, athwart, away, back, before, behind, by, forth, forward, from, off, out, past, through, to, unto

11) Woody에 따르면 다음의 부가사들이 상적 동사들을 만들어 낸다고 한다.

inchoctive-off, out, over, up / durative- off, out, over, up / completive - down, off, out, up

b. He was so drunk that he couldn't *hole up*.

Ⅱ. 확대된 방향의 의미

a. His purse eventually *turned up*.

b. The girl *grew up* to be an actress.

Ⅲ. 결과 상태로 나타나는 완성의 의미

a. The coffee was *shrivelled up*.

b. The window *broke up* suddenly last night.

Ⅳ. 완료나 시작과 같은 완성의 의미

a. He *clammed up* and said nothing for an hour.

b. Will the rain never *let up*?

Ⅴ. 높은 강도를 위하는 완성의 의미

a. John *revved up* his car.

b. The car *speeded up*.

이하에서 Bolinger의 분류에 따라 동사-전치사 구조-첨사 결합구조가 지닌 의미를 각각 문자적 의미(literal meaning), 은유적 의미(figurative meaning), 비은유적 의미(nonfigurative meaning)로 구분하여 알아보고 인지문법 측면에서 의미 확장과 부호화를 통해 종합해 본다.

3.1.1. 문자적 의미[12)]

동사와 전치사 구를 구성하는 각각의 구성성분이 개별적인 의미를 유지하고 있고, 다른 대용어로 바뀌어도 그 의미가 변하지 않고 분명하다. Quirk et al(1985)은 비관용적인 구문(nonidiomatic construction)이라고 하였고 Celce-Murcia and Lasen-Freeman(1999)는 자구적 의미 또는 문해적 동사-전치사 구조라고 하였다.

12) 문자적 동사-전치사 구조(literal Verb-preposition construction)는 Fraser(1976)가 체계적 결합으로 분류한 동사-전치사 구조에 해당하고, 이기동(1944)에 의한 분류의 경우 두 의미가 전체 의미에 뚜렷이 반영된 경우이다.

학습자가 의미를 파악하기 쉽다는 특징이 있다.

(36) a. He *cut* a piece *off* the loaf.
b. He *pulled* the sticker *off*.

(36a)에서 *cut*과 *pull* 이 가지는 동작은 *off*에 의해 그 방향을 나타낸다. *cut off*는 빵 덩어리에서 조각이 바깥쪽으로 잘려나간 것을 의미하고, (36b) *pull off*는 어딘가에 붙어 있는 것을 떼어내는 방향을 드러낸다. 또한 두 예문을 통해 동사-전치사 구조가 기술하는 상황이 완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문자적 의미의 동사-전치사 구조는 공간적 의미(spatial sense)를 가지고 있다.

(37) a. You must *hold* your horses *in* while they are going.
b. A bus *knocked* him *down.*
c. I have *locked* myself *in* by mistake.

(37a)에서 *hold in* 은 주어와 말 사이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로, 주어가 말이 움직일 때 고삐를 안쪽으로 당기는 것을 말한다. (37b)는 버스가 사람을 치어서 바닥에 쓰러진 경우이고, (37c)는 주어 자신이 실수로 건물이라는 공간 안에 갇힌 것을 말한다.

3.1.2. 비은유적 의미

문자적 의미와 달리 동사-전치사 구조를 구성하는 전치사구가 의미 측면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전치사구의 의미에 따라 뜻이 달라진다. 비은유적 동사-전치사 구조를 [13]Quirk et al(1985)은 반관용적 구문(semi-idiomatic

construction)이라 하였고, Celce-Murcia and Lasen-Freeman(1999)는 상적 동사-전치사 구조(aspectual Verb-preposition construction)라고 하였다. 이때 첨사의 의미에 따라 몇 가지로 구분해 보기로 한다. (Celce-Murcia and Lasen-Freeman:1999)

(38) a. He *sets out* his homework.
b. Mary *started up* the engine.

위의 *set out*과 *start up*은 전치사구 *out*과 *up*이 더해져서 동작이나 상태의 개시를 나타내고 있다. (38a)의 *set out*은 숙제를 하기 시작하는 동작을 의미하고, (38b)의 *start up*은 엔진이 작동하기 상태를 말한다.

(39) a. He *read on* late into the night.
b. She *spoke on* without hesitation.
c. How are you *getting along*?
d. He *read* the book *through*.

위의 예문에서 전치사구 *on, along, through* 등은 사건이 계속된다는 의미를 보여준다. *on*의 예문에서는 계속해서 동사의 행위를 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책을 밤늦게 까지 읽는 상태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행위), *along*은 시간이 연속되는 상태를 표현한다. 그래서 (39c)의 *get along*은 과거부터 최근까지의 근황을 묻는 역

---

13) Quirk et al(1985:1162)는 비은유적 동사-전치사 구조의 전치사구 속성을 다음의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는 완성 (completion)을 의미하는 것으로 drink up, break up, finish up, use up, find out, figure out, point out, work out, seek out 등이 있다. 두 번째 지속적인 행동(persistent action)의 예는 chatter away, fire away, work away 등이 있다. 세 번째 목적없는 행동(aimless action)의 예는 play around, mess around, wait around 등이 있고 마지막으로 인내(endurance)의 예는 draw out, hold out, last out 등이 있다.

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through*는 공간과 시간을 한쪽에서 다른 쪽까지 관통하여 그 행위를 마쳤음을 표시하기 때문에 *read through*는 책을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은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

(40) a. Every time I *roll over,* I wake up because of the pain on my wounded knee.
b. The barrel *rolled over*.

위는 전치사구 *over*가 *roll*과 결합하여 반복되는 의미를 표시하고 있는 예이다. (40a)는 주어가 잠을 못 이뤄 뒤척거리는 반복되는 동작을 보여주고, (40b)는 주어 *the barrel*이 한번만 구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구르는 동작을 되풀이 하고 있음을 뜻한다.

(41) a. He *fought* his anger *down.*
b. We *talked through* the problem.

완료적 의미를 갖는 동사-전치사 구조의 경우 첨사 *down*과 *out*이 쓰였다. 예문 (41a)에서 *down*은 주어가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 노력하여 결국은 화를 누그러뜨렸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한편 (41b)의 *through*는 3차원 대상을 통과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공간이 어떤 활동이나 동작을 의미한다면 '철저히, 완전히, 충분히'로 추측될 수 있다. 따라서 *talk through*는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토론을 하여 마무리했다는 뜻이 된다.

3.1.3. 은유적 의미

은유적 의미[14]는 동사와 전치사구가 각각의 의미를 벗어나 추측하기 힘든 관용적

인 의미로 바뀐 것이다. 본래의 의미에서 확장되어 학습자들에게 어려움을 겪게 하는 부분이다. Quirk et al(1985)은 고도로 관용적인 구문(highly idiomatic construction)이라고 하였고, Celce-Murcia and Lasen-Freeman(1999)는 관용적 동사-전치사 구조 (idiomatic Verb-preposition construction)라고 하였다.

은유적 의미의 동사-전치사 구조로는 *bring up* (=rear), *come by* (=acquire), *turn up* (=appear) *put off* (=postpone), *size up* (=estimate) 등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완전히 숙어적이라 전치사구의 대체가 불가능하다.

(42) a. The Second World War *broke out* in 1939.
b. We *looked up* the professor.

(42)의 *break out*은 구체적이고 공간적인 글자 그대로의 뜻은 '깨고 나오다'는 뜻인데 이것이 시간성과 추상성을 띠면서 '전쟁이 발생하다'는 의미로 확장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평화나 건강이라는 껍질을 깨고 나온다는 은유적 확장으로 *break out*이 '전쟁, 폭력, 질병이 발생하다'는 의미가 된다. 또한 *look up*은 '위로 쳐다보다'라는 일반적 의미에서 '마음으로 존경하다'라는 추상적 의미로 확장되었다.

3.1.4. 인지문법 측면의 의미 확장과 부호화[15)]

인지문법이란 산발적인 정보처리 대신에, 획득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다루고 새로운 방식으로 재생산할 수 있는 인지체계를 습득해야 한다는 주장을 문법학습에 적용시킨 것이다. 인지문법에서는 인간의 개념체계를 형성하는 인지적인 과정을 영상도식(image schema)과 개념적 은유로 보고, 그 개념체계가 자의적으로 나타나는

14) Linder(1983: 35)는 은유적 의미를 transferred meaning, extended meaning, secondary mean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동사-전치사 구조의 어휘만으로 그 의미를 추측하기 힘든 경우라고 하였다.
15) 의미 확장과 부호화의 개념들은 김은일 •박매란(2000)의 연구에서 나온 것이며, 이 개념을 진술하고 예문을 새로 추가하였음을 밝힌다.

언어현상들을 보다 구체적이고 동기화된 방법으로 설명한다. 그래서 새로운 항목과 기존의 인지체계를 연관시켜 구조적이고 창조적인 개념형성을 할 수 있게 된다.

김은일 • 박매란(2000)의 연구에 따르면, 인지문법의 두 가지 논점인 의미 확장과 부호화가 동사-전치사 구조의 의미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까지 살펴본 문자적, 비은유적, 은유적 의미의 동사-전치사 구조는 하나의 원형의미가 다른 상황에 적용된 연결선상에 있다. 임지룡(1997)은 의미 확장을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공간에서 시간을 거쳐 추상적인 개념으로, 일반적인 것에서 비유적인 것을 지나 관용적인 성격을 띠는 것으로 지적하였다. 관용성을 제외한 다른 양상들은 주로 은유(metaphor)를 통해 발전되어 지는데, 은유는 유사성을 바탕으로 하여 다른 개념영역들에 속한 것을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여 일컫는 것이다. 다른 개념들 중에서 용어가 사용된 원래의 개념영역을 '근원영역(source domain)이라고 한다.

명사 *gap*의 경우 '(벽·담·울타리 등의) 갈라진[터진] 틈, 구멍' 이라는 공간적 개념에서 '(시간·공간의) 격차, 간격'의 시간적 개념으로 '(의견·성격 등의) 큰 차이, (문화·사회적인) 격차'라는 추상적 개념으로 발전했다. 다시 말해서 구체적이고 공간적인 것은 원형의미가 되고, 시간적이고 추상적인 것은 확장의미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은유는 근원영역과 목표영역사이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은유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하게 되면, 동사-전치사 구조의 원형 의미로부터 확장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Givón (1979)에 따르면 원형의미란 확장의미에 비해 원어민의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고, 더 이른 시기에 습득되는 일반적인 개념이다. 또한 공간개념에서 시간개념으로, 시간개념에서 추상개념으로 전이 될 수 있으나 그 역으로는 전이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동사-전치사 구조 *stand back*은 '뒤로 물러나 있다, 뒤로 물러나다' 라는 공간적 의미에서 '(결정• 논쟁 따위에서) 손을 떼다'라는 의미로 은유적으로 확장되었다. 그리고 *fall apart*는 '산산조각이 나서 떨어져 나가다'는 의미에서 '(심리

적으로) 동요하다, 당황하다'는 의미로 확장되었다. 또한 *blow up*은 '(공기로 풍선들을) 채우다'는 원형의미에서 '(폭약 등으로) 폭발하다'는 의미와 가장 추상적인 뜻인 '화내다'라는 의미로 확대되었다. 마지막으로 '감정을 드러내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는 *light up*은 '밝게 하다, 담배에 불을 붙이다'라는 문자적 의미에서 발전한 것이다. 이들을 통해 은유적 의미가 후에 관용적 의미로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원형적 의미, 즉 문자적 의미부터 차근차근 파악하는 것이 동사-전치사 구조를 이해하고 학습하는데 도움이 된다. 다음은 문자적 의미가 관용적 의미로 발전한 예들이다.

(43)

동사-전치사 구조	문자적 의미	관용적 의미
look after	뒤따라가며 보다	돌보다
put off	떼어 놓다	연기하다
turn up	돌려서 높이다	나타나다
put out	내놓다	끄다
look up	쳐다보다	찾다
turn down	돌려서 낮추다	거절하다
carry out	운반해 나가다	수행하다
stand back	뒤로 물러나 있다	손을 떼다
fall apart	떨어져 나가다	동요하다 ; 당황하다
blow up	채우다	화내다
light up	밝게 하다	감정을 드러내다

부호화는 외국어 학습시 일어나는 현상으로, 모국어 체계를 목표어에 잘못 적용하여 발생한다. 이것은 간섭현상(inference)의 일종으로 영어에는 하나의 표현으로 존재하는 것이 한국어로는 다양한 표현으로 부호화 되는 경우가 있다. 동사-전치사 구조 *fall away*의 다양한 의미는 다음과 같다.

(44) a. John *fell away* her expectation.

(~을 저버리다 , 거역하다, 변절하다)

b. The board of the house had *fallen away.* (썩다)

c. Her reserve and distinctions seemed to *fall away.* (사라지다)

d. Their eyes met again, and *fell away.* (멀어지다, 떨어져가다)

e. The land began to *fall away* again. (평지, 정원등이 급경사하다)

f. Around seven o'clock, the traffic suddenly *fell away.*

(물건의 양이 줄어들다, 적어지다, 감소하다)

만일 학습자가 *fall away*를 위의 여섯 가지 의미들 중 하나의 의미로만 학습한다면 학습하지 않은 다른 의미에 대해 이해하기 힘들고, 각각을 별개의 것으로 학습을 하게 된다. 한국어 표현으로는 그 의미가 여섯 가지나 되기 때문에, 표현들 사이의 의미적 관계가 인지적으로 멀리 느껴지기 때문이다. 아래는 다양한 의미들 중에서 어떤 특정의미가 원형의미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경우로, 동사-전치사 구조 학습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예이다.

(45) a. take off (옷) 벗다; (비행기) 이륙하다 ; (시간) 쉬다

b. make up (얼굴) 화장하다; (사람) 화해하다; (수업) 보충하다 ; (이야기) 꾸미다; (집단) 구성하다; (마음) 결심하다

c. turn off (전기, 시동) 끄다; (물) 잠그다

d. turn on (전기) 켜다; (수도) 틀다; (시동) 걸다

e. come across (사람) 우연히 만나다; (물건) 우연히 발견하다

f. fall away 저버리다; 썩다 ; 사라지다 ; 멀어지다; (평지, 정원) 급경사하다 ; 양이 줄어들다

g. run down 쓰러뜨리다; (범인 따위를) 쫓아가다; (기계, 태엽 따위가) 느슨해지다;

	(토지, 장소가) 쓸모없게 되다
	; (사람, 국가를) 비방하다 ; 지치다
h. let out	(비명) 지르다; (비밀, 정보) 누설하다;
	(벨트, 의복) 느슨하게 하다;
	(가옥) 임대하다; (자동차) 속도를 내다

Ⅳ. 동사-전치사 구조의 화용적 특성

4.1 화용적 특성

다음에서 동사-전치사 구조는 비격식적인 담화에서 사용되며, 생산적이다. 또한 강세와 억양측면에 있어서도 특징을 보인다. 특히 정보제시와 전치사구의 위치는 화용적 특성을 잘 보여준다.

4.1.1. 비격식성과 생산성

동사-전치사 구조는 동일한 의미를 지닌 단일 동사와 비교해서 비격식적인 글이나 발화에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영어의 어원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동사-전치사 구조가 중류 영어 원어민 화자가 사용한 일반적인 표현이었다면, 단일동사의 경우 라틴어를 아는 상류층의 현학적인 표현으로 외래어의 도입결과가 된다. 따라서 동사-전치사 구조가 비격식적이고 구어적 경우 빈번히 등장하며, 단일동사는 격식적이고 문어적 상황에서 등장하는 것이다. 그 결과 동사-전치사 구조는 오늘날 신문, 영화, 소설,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에서 사용되고 있다.

게다가 동사-전치사 구조의 수는 한정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새로운 동사-전치사 구조가 만들어 질 수 있다.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새로운 현상들이 발생할 때 이를 기술하기 위하여 새로운 동사-전치사 구조가 만들어지고 널리 쓰이고 있다. 새로이 만들어지는 동사-전치사 구조는 사업, 의사소통, 일상생활에 관련된 표현들이 많다[16]. 예를 들어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을 이용하고 있다.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text*를 동사로 사용하여 '문자 메시지를 보내다'는 의미로 쓴다. *text* 다음에 상대방에게 답문 메시지를 보낼 때는 *back*을 붙여 *text back*이라고 한다. 그리고 요즘에는 인터넷이 널리 쓰임에 따라 편지 대신 이메일을 많이 주고받는다. 만일 이메일을 보냈는데, 제대로 가지 않고 되돌아 올 경우에는 *bounce back* 이라는 표현을 쓴다. 본래 *bounce*는 '공 따위가 되튀다'는 의미였는데 '메일이 되돌아오다'라는 의미로 확장되어 쓰이고 있다. 또한 *bottle out*은 '감정을 억제하다'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bottle*은 명사로 많이 사용되지만 동사로 품사 전환된 후 전치사구 *out*을 첨가하여 '(어떤 행동을) 하지 않다'가 된다. 재미있는 다른 표현으로는 '과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pig out*이 있다.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돼지를 탐욕스러운 동물로 먹기 때문에 *pig out*은 '게걸스럽게 먹다'가 되는 것이다. 아래는 예를 포함한 동사-전치사 구조 신조어의 예이다.

(46)

text back	문자 메시지를 보내다	buy into	믿다, 받아들이다
bounce back	(메일이) 되돌아오다	chill out	휴식하다, 침착해지다
party out	파티에서 지치도록 놀다	stress out	걱정하다
dress down	평상복을 입다	bottle out	(감정을)억제하다
dress up	정장을 입다	veg out	휴식하다
big up	극찬하다	luck out	성공하다
pig out	과식하다	fire off	-에게 퍼붓다

16) 윤재선 (2004). *알고 보면 쉬운 영어 구절동사.* 서울: 한국문화사

4.1.2. 음운론 측면

음운론적 측면에서 동사-전치사 구조의 강세(stress)와 억양(intonation)을 살펴보자. Quirk et al.(1985)에 따르면 부사는 일반적으로 강세를 받으며 특히 문장 끝에서는 핵강세(primary stress)를 받지만, 전치사는 강세가 없는 것이 보통이며 어휘적 동사에 핵강세가 온다고 했다. 예문에서 대문자로 표기한 단어는 강세를 받는 단어들이다.

(47) a. She looked UP the word.

b. She LOOKED up the hill (Quirk et al. 1985: 662)

c. He can't be taken IN.

d. He can't be LAUGHED at. (Mithchell 1985: 104)

(47a), (47c)의 *up*과 *in*은 부사이고 동사와 결합하여 동사-전치사 구조를 이룬다. 즉 전치사구는 동사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고 전체 의미에 보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강세를 받는 것이다. 반면 (47c), (47d)에서 *up*과 *at*은 전치사이고 뒤에 따르는 목적어 앞에 위치하여 기능적인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자유결합형에서는 문장의 중요한 내용을 표현하는 동사들이 강세를 받는다.

그러나 Quirk et al.(1972)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시했다. 예를 들어 *across, over, without*과 같은 다음절인 전치사는 자유결합형에서 쓰일 경우에 강세를 받는 경향이 있다.

(48) a. She could have done *withóut* his help.

b. He will never get *óver* it.

(48a)에서 *do without*은 동사와 전치사의 결합이므로 강세가 동사에 있어야 하나 *without*이 2음절어이기 때문에 강세가 *without*의 둘째 음절에 오며, 이는 (48b)

*over*는 1음절에 강세를 받는다.[17] 그러므로 대부분은 전치사보다 전치사 구에 핵강세가 오지만, 전치사가 다음절어이면 핵강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억양에 있어 동사-전치사 구조는 하나의 단위로 상승억양을 받지만, 전치사 수반 동사는 억양이 다르다. Mitchell(1958)은 문장의 부사는 하강 억양 (falling intonation)을 갖고, 전치사는 낮은 어조(low steady tone)를 유지한다고 하였다. 억양은 발화의 상황에 따라서 전달하는 의미가 달라진다.

(49) a. She **looked over** the book.
b. She **looked** over the **fence**.

위 예문에서 굵은 글씨로 표현된 부분은 상승억양을 갖는 부분이다. (49a) 에서 *look over*는 책을 훑어보다는 의미의 동사-전치사 구조로 상승억양을 갖지만, (49b)은 '담장 너머로 보다'를 의미하는 동사-타동사적 전치사 구조로 *look*과 *fence*가 상승억양을 갖는다.

4.1.3. 정보제시와 전치사구의 위치

정보 제시 측면에서 동사-전치사 구조의 목적어가 명사구인지 대명사인지에 따라서 다른 구조를 보인다. 영어에는 문장의 어순이 구성성분이 가진 정보의 비중에 의해 결정되는 원칙이 있다. 이를 문미 초점(End-focus)원칙[18]라고 하는데, 문장의 핵심 내용이 문미에 위치해야 하므로, 구정보(old information)가 신정보(new information)에 앞서 제시되는 것이다.

---

17) 오주영. "영어 구동사의 화용론적 접근." 경성대학교 교비지원 연구논문, 경성대학교, 2000.
18) 신정보의 원리 또는 말미하중격률(end-weight maxim)이라고도 하며, 프라그 언어학파의 통사이론으로서 문장의 형성은 통사론적 요인과 의미론적 요인 이외에 담화 상에서 그 문장의 구성소가 갖고 있는 정보량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론이다. (오주영: 2002"영어 구동사의 화용론적 접근.")

(50) a. He *filled in* the application.

b. He *filled* it *in*.

c. *He *filled in* it.

예문(50)의 *fill up*은 동사와 전치사구의 결합으로, 목적어가 대명사일 때 *fill*과 *in* 사이에 위치한다. 만약 대명사가 문미위치에 있으면 비문이 되는데 이것을 정보 제시 관계로 알아보자. 문미 초점원칙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구정보 *it*은 신정보에 앞서 제시되어야 한다. 이 문장의 신정보는 전치사구 *up*으로 문미에 위치해야 하므로, 두 가지가 모두 적용되는 어순은 (50b)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경우의 강세를 문미초점 원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51) a. We *túrned ôn* the lámp.

b. We *túrned* ît *ón*.

위의 (51)에서 동일한 전치사구 *on*이 (51a)에서는 제2강세를 받고, (51b)에서는 제1강세를 받는다. (51a)에서 신정보인 명사구 목적어가 제 1강세를 받기 때문에 전치사구 *on*의 강세는 한 단계 낮아졌고, (51b)에서는 목적어가 대명사로서 구정보에 해당하므로 제2강세를 받는다. 그래서 (51b)의 전치사 구는 제1강세를 받게 된다. 이로써 문장의 신정보에 강세가 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전치사구가 목적어의 앞이나 뒤, 어느 위치에 있는가에 따라 의미가 다르다. 동사-전치사 구조가 타동사의 역할을 할 때, 전치사 구는 목적어의 전후에 모두 올 수 있지만, 똑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이나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외국인들은 전치사구의 이동을 명확하게 구분지어 사용한다기보다 문맥과 상황에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 쓴다. 대부분 전치사구가 목적어 앞에 위치하는 것보다 뒤에 오는 경우가 보다 더 일반적인데, 이에 유표성(markedness)[19] 개념을 적용해보자. 무표성과 유표성은 긍정과 부정의 두 가지

가치를 대립의 관계에 부여한 것으로 대체로 간단하고 일반적인 것은 무표적(unmarked)인 것으로, 복잡하고 특수한 것은 유표적(marked)인 것으로 간주하는 특징이다. 전치사구가 목적어 앞에 위치하는 경우가 뒤에 위치할 때보다 무표적이며, 목적어 뒤에 올 때는 유표적이다.

(52) a. I *figured out* the fact.
b. I *figured* the fact *out*.
c. * I *figured out* it.
d. I *figured* it *out*.

위의 예문 (52a)는 (52b)보다 더 무표적이다. (52a)에서는 전치사구가 동사와 결합하여 목적어 앞에 위치하였으나, (52b)는 전치사구가 문미에 위치하여 더 유표적이다. 무표성이란 일반적으로 동사-전치사 구조의 동사와 전치사구가 분리되기 보다는 결합되는 경우가 더욱더 자연스러움을 나타낸다. (52c)에서 목적어가 대명사이면 분명하게 전치사구의 분리성이 나타난다. 따라서 분리된 (52d)가 유표적이라 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치사구의 위치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는데, 예문(53)을 보자.

(53) a. He *made* a little poem *up* and wrote it in the card. (= invent)
b. Women *make up* 40 percent of the workforce. (= constitute)

---

19) 유표성 이론은 개념들 간의 관계에서 정반대로 나타나는 대립의 구조가 존재하고 대립 극을 이루는 요소들이 특별화된 것(marked)과 일반화된 것(unmarked)으로 나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대립의 구조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으로 명확히 구분지어진다기 보다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 그 관계가 바뀌기도 한다. 예를 들어 young과 old를 보자면 old는 young에 비해 무표적인 특징을 가진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How old are you?"라고 질문을 할 수 있지만, ”How young are you?"라고 질문을 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예문 (53)는 동사-전치사 구조 *make up*의 전치사구 위치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보여준다. (53a)는 전치사구 *up*이 목적어의 뒤에 위치하여 '이야기, 소설 등을 만들다'는 뜻이고, (53b)에서 *up*은 목적어의 앞에 위치하며 '구성하다, 형성하다'를 의미한다.

또한 전치사구의 위치를 결정하는 또 다른 요인은 동사-전치사 구조가 의미상 관용적인가 비관용적인가의 여부이다. 동사-전치사 구조가 비관용적이면 전치사 구는 목적어의 뒤에 오지만, 본래의 문자적 의미를 벗어나 더 추상적인 의미로 확장된 경우에는 동사 바로 다음에 오는 경향이 있다.

(54) a. He *brushed off* dust.
b. He *brushed* dust *off.*
c. We can't *brush off* the neighbors.
d. *We can't *brush* the neighbors *off.*

위 (54a)와 (54b)의 *brush off*는 문자적인 의미로 '먼지를 털어내다'이므로 전치사구 *off*가 (54b)와 같이 목적어 뒤로 이동할 수 있다. 그러나 (54c)와 (54d)를 비교하면 후자는 비문이다. 그 이유는 동사-전치사 구조 *brush off*에서 *brush*와 *off*의 합성에서 '무시하다(neglect)'라는 의미를 유추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동사-전치사 구조가 비유적이고 추상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 동사와 전치사 구는 인접해 있어야 하고, 강한 결속력을 갖는다.

Ⅴ. 결론

본 논문은 현대 영어의 특징 중의 하나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동사-전치사 구조를 Bas Aarts의 주장을 바탕으로 유형별로 분류하고, 동사-전치사 구조의 의미 • 화용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 3권의 동사-전치사 구조 문장을 발췌하여 동사-전치사 구조 분류에 이용하였다.

먼저 동사-전치사 구조에 관한 여러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고, 동사-전치사 구조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치사구를 일반 전치사나 부사와 유사하여 구별하기 어렵지만, 형태상의 변화 없이 문법적 기능을 가진 특정한 부사 및 전치사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동사-전치사 구조를 통사적 특성에 따라서 크게 타동사적 동사-전치사 구조와 자동사적 동사-전치사구조로 나누었다. 타동사적 동사-전치사 구조는 목적어인 명사구의 위치에 따라 동사+명사구+전치사구, 동사+전치사구+명사구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명사구가 전치사구의 앞이나 뒤에 올 수 있는데, 이것은 동사와 전치사구가 숙어적으로 강하게 결합되어 있는 경우이다. 반면 자동사적 동사-전치사 구조는 동사+자동사적 전치사구와 동사+타동사적 전치사구로 구성된다. 그리고 동사+전치사구+전치사구+명사구가 하나의 타동사 역할을 하는 유형을 추가하였다. 구분 방법으로 수동문 형성, 부사구의 삽입 여부, 전치사구 분리 가능 여부, 관계대명사 전치 여부, Wh-의문사 구문 변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자동사적 동사-전치사 구조를 중심으로 의미론적 특성과 화용론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의미론에서는 문자적 의미, 비은유적 의미, 은유적 의미의 확장을 알아보았고, 비격식적이고 높은 생산성, 강세와 억양, 정보제시의 세 가지 측면에서 화용론적 특성을 논의해 보았다.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원어민들은 한 단어로 된 동사보다 동사와 전치사구로 이루어진 동사-전치사 구조를 일상 대화체나 비형식적인 문체에서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동사-전치사 구조가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빈도와

유형을 살펴보았다. 부록의 표<1>-<3>을 통해, 동사-전치사 구조가 자주 활용되는 유형과 횟수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었지만, 수록된 종류와 표현들은 타동사적 동사-전치사 구조 (Type 2), 동사-타동사적 전치사 구조 (Type 3), 동사-자동사적 전치사 구조 (Type 1)의 순서로 많았다. 상대적으로 동사-전치사구-전치사구-명사구(Type 4)는 적게 나타났다.

참 고 문 헌

강낙중. 『(원리를 알면) 영어 구동사 숙어 만들어 쓸 수 있다』 . 서울: 한국문화사, 1997.

김영안. 『영어 숙어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서울: 금문, 1996

김정기. 『Idiom Workshop』. 서울: 거로출판사, 1993.

구학관. 『필수 idiom 활용파일』. 서울: testbank21.com, 2000.

문용. 『고급 영문법해설』. 서울 : 박영사, 2007.

윤재성. 『알고 보면 쉬운 영어 구절동사』. 서울: 한국문화사, 2004.

최은경. 『영어 구동사의 벗』. 서울: 한국문화사, 1999.

심명호 외. 『High School English 1』. 교학사, 2003.

이찬승 외. 『High School English 1』. 능률교육, 2002.

이홍수 외. 『High School English 1』. 케이스, 2001.

김은일•박매란. "중 • 고등학교 교과서에 사용된 구동사의 인지언어학적 분석: 효율적인 학습을 위하여." 부경대학교 교비지원 연구논문, 2000.

오주영. "영어 구동사의 화용론적 접근." 경성대학교 교비지원 연구논문, 경성대학교, 2000.

강윤정. "영어 구동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2004.

김자영. "영어 구동사(Phrasal Verb)의 이해에 관한 분석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06.

김주미. "영어 구동사에 관한 연구: 현행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2005.

박미혜. "영어 구동사의 분석."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장영목. "영어 불변화사의 특성."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1997.

정미아. "구동사의 유형과 특성." 석사학위논문,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2004.

Bas Aarts, *English Syntax and Argumentation*. Basingstoke: Palgrave, 2001.

Bolinger, D, *The Phrasal Verb in English.*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Bough, A. C and T, Cable, *A History of the English Language.*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78.

Celce-Murcia, Marianne and Larsen-Freeman, Dinae, *The Grammar Book: An ESL/EFL Teacher's Course,* Heinle & Heinle Publishers, 1999.

Chomsky Noam A, *Syntactic Structures.* Janua Lingaurum, 4. Mouton: The Hague, 1957.

Collins Cobuild, *Dictionary of Verb-preposition constructions, 1989.*

Cowie, A.P &R, Mackin, *Oxford Dictionary of Current Idiomatic English.* London: Oxford Univ. Press, 1975.

Crume, G.O, *English grammar.* New York: Barmer & Nable, 1947.

Fraser, B, *The Verb-Particle Combination in English.* New York: Academic Press, 1976.

Hook, J.N, *Two-word verbs in English*. New York: Harcourt Brace Jovonovich, 1981.

Howard Sargeant, 『영어동사구를 자유자재로 쓰게 되는 책』. 서울: 두앤비 컨텐츠, 2005.

Jesperson, Otto, *The philosophy of Grammar.*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1958.

John Shepheard, 『회화에 강해지는 기본 동사-전치사 구조』. 서울: 넥서스, 2004.

Kenndy, A.G, *The Modern English Verb-Adverb Combination.* Standford: Stanford Univ. Press, 1920.

Linder, Susan J, *A Lexico - Semantic Analysis of English Verb-*

Particle Constructions with Out and Up. Bloomingston: Indiana Univ. Linguistic Club, 1983.

Live, Anna, H, *The Discontinuous Verb in English. Word* 21, 1965.

Lobeck, Anne, *Discovering Grammar*. Oxford University Press. Inc, 2000.

Mitchell T F, Syntagmatic Relation in Linguistic Analysis. *Transactions of the Philological Society*. 1958.

O'Dowd, M. E, *Prepositions and particles in English: A Discourse-Functional Accoun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Oxford Verb-preposition constructions, Oxford Univ, Press, 2001.

Oxford dictionary of current idiomatic English

Palmer, F.R, *The English verb*. London: Longman Group Ltd, 1981.

Quirk et al. (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don: Longman Inc.

Quirk, R., S. Greenbaum, *A Student's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New York: Longman, 1990.

Radford, Andrew, *Transformational grammar : a first cours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Rosemary Courtney. *Longman dictionary of Verb-preposition constructions*

Sinclair John, *Collins Cobuild English dictionary for advanced learners,* Harper collins Publishers Ltd, 1989.

Steve Jung.『영어 잘하는 사람은 기본동사를 쓴다』 서울: 두앤비컨텐츠, 2004.

Woody Lester Gould, *A pragmatic Linguistic Theory with some Applications to the Verb-preposition construction in English*.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Chapel Hill) dissertation, 1974.

부 록

광주지역 고등학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 3권을 선정하여 동사-전치사 구조의 사용빈도와 용례를 조사해보았다. 교학사 (심명호 외 4), 케이스 (이흥수 외 5), 능률교육 (이찬승 외 4)를 참고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각 교과서 단원별로 쓰인 동사-전치사 구조의 유형을 조사하였고, 사용현황과 빈도를 정리하였다. 동사-전치사 구조의 유형에 대해서는 앞서 분류한 바와 같이 동사-자동사적 전치사 구조 (Type 1), 타동사적 동사-전치사 구조 (Type 2), 동사-타동사적 전치사 구조 (Type 3), 동사-전치사구-전치사구-명사구(Type 4)로 구분하였다. 각 유형별로 동사-자동사적 전치사 구조 (Type 1)부터 동사-전치사구-전치사구-명사구 (Type 4)에 속하는 교과서의 예문들을 간추려 보았다. 전체분석은 예문 아래 표로 정리하였다.

<동사-자동사적 전치사 구조 : Type 1>

1. When people *lived in* groups and communities and did very little traveling, they only spoke the language of their own little world.
(교학사 p.16)

2. How do you usually *find out* about radio? (케이스 p.128)

3. This means they will all be gone by the time you *grow up* unless we save them with your help! (능률교육 p.86)

<타동사적 동사-전치사 구조 : Type 2>

1. They are *talking about* factors that can affect the aging. (교학사 p.77)

2. I can *listen to* the radio and enjoy the music. (케이스 p.164)

3. Kids like to *pick on* people who are different. (능률교육 p.128)

4. The farmer *took care of* his roses as if they were his kids.
(교학사 p.23)

5. *Take advantage of* the opportunity to make something available to other

users of the Internet. (케이스 p.110)

<동사-타동사적 전치사 구조 : Type 3>

1. These travelers want to *speak to* each other. (교학사 p.16)

2. I'm *worried about* my physical education class! (케이스 p.15)

3. Koreans say yes or no based on whether we *agree with* the meaning of the whole sentence, not based on coming or not coming as in English. (능률교육 p.106)

<동사-전치사구-전치사구-명사구 : Type 4>

1. I would *break up with* someone with if he/she had bad manners. (케이스 p.51)

2. I *looked forward to* meeting you, but my business here in Canada prevented me from flying to Korea. (케이스 p.119)

3. Messula was in the lead, but Ben-Hur suddenly *caught up with* him and crossed the finish line first. (능률교육 p.174)

표1. 교재별 동사-전치사구 분포

Textbook	Type1	Type2	Type3	Type4	Total
교학사	34	46	55	0	135
케이스	21	53	51	5	130
능률교육	47	73	68	8	196
Total	102	172	174	13	461

위 표에 따르면, 교학사(심명호 외 4)에서 동사-자동사적 전치사 구조(Type1), 타동사적 동사-전치사 구조(Type2), 동사-타동사적 전치사 구조(Type3)의 순서로 쓰였다(각 34, 46, 55회). 케이스(이흥수 외 5)는 타동사적 동사-전치사 구조(Type2)가 53회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동사-타동사적 전치사 구조(Type3)가 많았다(51회). 마지막으로 능률교육(이찬승 외 4)는 위의 두 교재보다 동사-전치사 구조의 사용비율이 훨씬 높았다. 타동사적 동사-전치사 구조(Type2) 73회, 동사-타동사적 전치사 구조(Type3) 68회, 동사-자동사적 전치사 구조(Type1) 47회 사용되었다.

간추려보면, 3권의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동사-전치사 구조가 각각 교학사(135회), 케이스(130회), 능률교육 (196회) 사용되었으며, 동사-전치사 구조의 4가지 유형별로는 타동사적 동사-전치사 구조 (Type 2)가 동사-타동사적 전치사 구조(Type3)가 가장 높은 비율로 사용되었으며, 동사-자동사적 전치사 구조(Type1)의 수가 세 번째로 많았다. 반면 동사-전치사구-전치사구-명사구(Type4)는 상대적으로 적은 양이 수록되어 있었다. 심지어 교학사 교재에는 동사-전치사구-전치사구-명사구(Type4)가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영어교육	학 번	20058223	과 정	석사
성명	한글: 서민교	한문: 徐旼巧		영문: Min-gyo Suh	
주소	광주 서구 양동 36-6				
연락처	010-3174-3606	E-MAIL: itsme0912@hanmail.net			
논문제목	한글 : 영어 동사-전치사 구조의 유형 연구 영문 : A Study on Types of English Verb-preposition Constructions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 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2008년 4 월 24 일

저작자: 서민교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